

# 호남지방에서 발생한 3개 종교의 지역적 확산 과정과 특성: 증산교(甞山敎), 원불교(圓佛敎), 갯정유도(更定儒道)를 중심으로\*

조성욱\*\*

##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Diffusion Process of Three Religions in Honam Region: Focus on Jeung-San-Gyo, Won-Buddhism, Gaeng-Jeong-Yudo\*

Sungwook Cho\*\*

**요약 :** 1861년 발생한 동학 이후 호남 지방에서 출현한 증산교, 원불교, 갯정유도의 3개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의 형성과정, 확산과정 그리고 지역적 전개에서 종교별 특성을 살펴봤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산교는 1902년, 원불교는 1916년, 갯정유도는 1929년 창시되었다. 모두 직간접적으로 동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발생 시기, 전라도 지역, 유불선을 통합하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둘째, 증산교는 전북 김제, 원불교는 전남 영광, 갯정유도는 전북 순창에서 출발하였다. 증산교와 원불교는 전라북도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다가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졌고, 갯정유도는 전라도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지역적 특색을 보여준다. 셋째, 종단 조직과 포교 방법에서, 증산교는 창시자의 사후 분파 중심으로 비직접 이전 확산과 전염 확산 형태를 보여주고, 원불교는 중법사 중심의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이전 확산과 계층적 확산 형태를 보여주며, 갯정유도는 교조 중심의 단일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전염 확산이 이루어졌다. 넷째, 전파방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연원체에 기반한 전염 전파에 기초하는데, 증산교는 1,000명 단위의 방면 조직, 원불교는 십인일단 조직, 갯정유도는 7명 응성 조직으로 포교가 이루어졌다. 다섯째, 포교 대상에서 증산교는 수도권 중심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원불교는 15개 교단 조직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포교, 갯정유도는 농산촌을 중심으로 포교가 이루어졌다. 여섯째, 종교별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은 교단조직의 차이, 포교방법의 차이, 도시와 농촌 등 주력 포교 지역의 차이, 포교 대상 연령층의 차이 등에 있었다.

주요어 : 동학, 증산교, 원불교, 갯정유도, 종교의 형성과정, 확산과정, 지역전개 특성

**Abstract :** The characteristics of three religions, Jeungsan Gyo, Won Buddhism, and Gaengjeong Yudo which emerged in the Honam region after Donghak occurred in 1861, examined in the formation process, diffusion process, and regional develop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Jeungsan Gyo was founded in 1902, Won Buddhism in 1916, and Gaengjeong Yudo in 1929. All were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d by Donghak, and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erms of the timing of occurrence, Jeolla-do region, and integration of Yubulseon. Second, Jeungsan Gyo started in Gimje, Won Buddhism started in Yeonggwang, and Gaengjeong Yudo started in Sunchang. Jeungsan Gyo and Won Buddhism diffusion around the western part of Jeollabuk-do, and then diffusion nationwide, while Gaengjeong Yudo show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at diffusion around the southeastern part of Jeolla-do. Third,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 and missionary method, Jeungsan Gyo showed relocation diffusion and contagious diffusion centered on the founder's post division, Won Buddhism showed relocation diffusion and hierarchical diffusion based on a single religious organization,

\*이 논문은 2022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chossww@jbnu.ac.kr)

Gaengjeong Yudo was centered on a single organizational system and contagious diffusion. Fourth, the propagation method is commonly based on infectious diffusion, Jeungsan Gyo is a group of 1,000 people, Won Buddhism is a group of 10 people, and Gaengjeong Yudo is a group of 7 people. Fifth, Jeungsan Gyo was held for young people in the center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on Buddhism was conducted nationwide with 15 religious organizations, and Gaengjeong Yudo was centered on agricultural villages. Sixth, the causes of the difference in the process of diffusion by religion are differences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 missionary methods, major missionary areas, age groups subject to missionary work.

Key Words : Donghak, Jeungsan Gyo, Won Buddhism, Gaengjeong Yudo, Religious formation process, Diffusion process, Regional development characteristics

## I. 서론

호남 지방(전라도 지역)에는 백제시대에 법성포를 통해 불교가 도래하였으며(전남 영광군 법성포, 384년), 1784년 유향검(전주 초남이)과 1791년 윤지충의 진산사건(현재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이후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1893년 정해원의 파견과 1897년 잉골드(Ingold)의 진료를 시작으로 전주 예수병원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도래하였다(전주역사박물관, 2015).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교인 동학은 1861년 경주에서 최제우에 의해서 탄생한 이후, 2대 교주였던 최시형에 의해서 경상도와 강원도를 거쳐 1888년 이후 전라도 포교가 이루어졌다. 이후 1894년 동학혁명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면서 전라도는 동학의 핵심지역이 되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외래 종교와 자생 종교인 동학 역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전라도에 전파되었는데, 동학의 주도로 발생한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전라도(호남) 지역에서는 증산교(1902년), 원불교(1916년), 갯정유도(1929년) 등의 신흥 종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신흥 종교 운동은 1861년에 발생한 동학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데, 활발하게 종교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인 1900년대부터이다(윤용복, 2006:95).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실패 이후 농민군의 잔여세력은 의병(義兵), 영학당(英學黨), 활빈당(活貧黨) 등에 가담하며 무장투쟁 중심의 사회운동을 지속하거나, 종교운동 형태로 사회운동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다(박맹수, 2015:151). 이 중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天道教)는 1905년에 성립되었고, 동학 계열의 신흥종교인 증산교(甞山教, 강일순), 원불교(圓佛敎, 박중빈), 갯정유도(更定儒道, 강대성) 등이 등장했다.

발생순서별로 보면 먼저, 증산교는 당시 전라북도

(1896년에 전라남북도가 분리됨) 고부군 출신인 강일순(姜一淳)에 의해서 1902년에 탄생되었는데, 강일순은 1902년 김제 모악산의 대원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김제 금산면 지역을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하였다. 원불교는 전라남도 영광군 출신인 박중빈(朴重彬)에 의해서 1916년에 탄생되었는데, 박중빈은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영광군을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하였다. 갯정유도는 전라북도 순창군 출신인 강대성(姜大成)이 1929년 순창군 회문산 금강암에서 깨달음을 얻고, 1944년부터 회문산을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하였다.

이 3개의 신흥종교는 전라도 지역에서 발생한 신흥종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종교 형성 이후 교단체계와 포교방법 등의 차이로 지역 확산에서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 종교의 원리보다는 신흥종교의 탄생 및 형성과정과 지역 확산의 종교별 특징을 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자생종교의 종교별 지역 확산의 특성과 종교 발생지에 대한 장소적 관성 측면에서의 지리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II. 호남 3개 종교의 형성과정

증산교, 원불교, 갯정유도의 공통점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인 1900년대 호남 지방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표 1). 증산교(1902)와 원불교(1916)는 득도 시기와 종교 발생 시점이 일치하지만, 갯정유도는 도각 시점(1929)과 종교 형성시기(1944)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증산교가 일제 강점기 이전에 탄생한데 비하여(1902), 원불교와 갯정유도는 일제강점기에 종교로 성립되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표 1. 호남지방 3개 종교의 탄생

종교	창시연도	창시자(생몰연도, 출신지역, 득도시기)	득도지역
증산교	1902	강일순(1871~1909, 고부군, 득도 1902년)	완주군 모악산 대원사
원불교	1916	박중빈(1891~1943, 영광군, 득도 1916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영촌
갱정유도	1944	강대성(1889~1954, 순창군, 도각 1929년)	순창군 회문산 금강암

## 1. 증산교(甌山敎)의 형성과정

증산교는 전라도 고부군(현재 전북 정읍시 덕천면 신월리 신송마을) 출신인 강일순(강증산, 1871~1909)의 1902년 득도와 함께 창시된 종교이다. 강일순의 호인 증산(甌山)은 천상의 옥황상제를 의미하며, 증산교에서는 강일순을 강증산이라 부르고, 증산 강일순과 관련된 모든 종파를 증산교라고 칭한다. 강일순은 한 가지 종교이념만으로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종교의 장점을 모아 통합시키는 것으로 후천세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산교').

증산교에서는 운도(運度)로 예정된 세상을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으로 나누고, 현대를 선천에서 후천으로 교체되는 시기 즉, '말세'라고 보았다. 선천시대에는 부조리가 심한 세상이었으며, 후천시대를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으로 보았다. 증산교의 핵심 교리는 천지공사(天地公事)인데, 이것은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운도를 뜯어고쳐 말세의 재앙과 불행을 없애고 후천세계를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선천시대에 천지간의 그릇된 모든 이치를 뜯어고쳐 바르게 한다는 것이다. 증산교에서는 강일순의 '천지공사'로 후천세계로의 개혁이 일어나 갈등과 대립이 없어지고, 지상선경(地上仙境)이 이루어져 새로운 이상세계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증산사상에서는 인존사상(人尊思想)·해원사상(解冤思想)·민족주체사상이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산교').

강일순은 1871년에 태어났으나 동학운동(1894년, 23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1897년(26세)부터 3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후, 1902년(31세)에 전북 김제 모악산(母岳山)에 있는 대원사(大院寺)에 들어가 도를 닦기 시작하였다. 수도생활을 하던 중 7월 하늘과 땅의 근본이 되는 바론길인 '천지대도'를 깨달았고, 이때부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강일순은 도를 깨달은 1902년부터 1909년 사망할 때

까지 8년 동안 김제 금산면 구릿골의 동곡약방(廣濟局, 廣濟局)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였다(현재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동곡마을(일명 구릿골))(그림 1).

강일순의 사후 증산교는 다양한 종파로 분파되었는데, 증산교의 일파인 보천교를 비롯하여 100여개에 이르는 교단을 이룬 적도 있지만, 보천교 이후 쇠퇴하여 현재는 약 60여개의 종파가 있다.

증산교의 교파들은 주로 전라북도 모악산 주변(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와 금산리)을 중심으로 서울·충청도·경상도·부산·제주도 등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다. 특히 1970년대 초에 창립된 개혁교파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데,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증산계 교파의 신도는 약 200여만 명(1996년)에 이르기도 했으며(김홍철 등, 1997), 현재 증산교 계통의 교파 중 가장 큰 종파는 대순진리회이다.

## 2. 원불교(圓佛敎)의 형성과정

원불교(圓佛敎)는 1916년 전라도 영광 출신인 박중빈(소태산, 1891~1943)이 깨달음을 얻은 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 아래 탄생한 종교이다. 박중빈은 깨달은 진리의 상징을 둥근 원(○)으로 표현하였고, 이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다. 박중빈을 '소태산 대종사'라고 부르는데, '소태산(少太山)'은 호이고, '대종사(大宗師)'는 원불교 교조에게만 쓰는 호칭이다.

박중빈은 1891년 전라도 영광군 백수면 길용리 영촌에서 태어났으며, 20여년의 구도 끝에 1916년(25세) 4월 28일(대각개교절 大覺開教節) 새벽, 정신이 상쾌해지고 전에 없던 새로운 기분을 느끼면서 일원(一圓)의 진리를 깨달았다.

원불교는 그 연원을 불교에 두고 있으나, 불교와는 신앙 대상의 상징이 다르며, 교단의 운영방식과 제도도 다르다. 즉, 원불교는 불교와 근본적 진리는 상통하나, 소태산이 깨달은 일원상의 진리인 법신불(法身佛) 사상을



그림 1. 증산교의 초기 발생 지역(전북 김제시 금산면)

주체로 하고, 모든 종교의 장점을 취하여 시대화·생활화·대중화의 개혁을 시도하고, 정신개벽(精神開闢)을 표방한 종교이다. 소태산은 앞으로의 세계는 동방이 중심이 되며, 특히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서 중심국가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불교').

1917년 박중빈은 제자들(8명)과 공부와 사업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조합을 설립하고, 1918년 길용리 앞의 갯벌을 막는 간척사업을 시작하여(1918.5.13.~1919.9.16.) 높이 2m의 방조제를 만들어서 3만평의 간척지를 조성하였는데, 이를 구호농장(九虎農場) 또는 정관평(貞觀坪)이라고 부른다(박용덕, 1989:69). 1919년에 옥녀봉 아래에 조합실을 건축하여 교당으로 사용하다가, 1923년 돛드래미 뒷산에 새로운 교당을 건축하였는데, 이것이 현재의 영산원이다. 이와 같이 원불교는 처음에는 저축조합으로 시작하여, 불법연구회 기성조합, 불법연구회를 거쳐 1946년 원불교라는 종교명을 사용하게 되었다(박용덕, 1989:80). 이후, 박중빈은 전북 부안군의 변산과 익산(당시 이리) 등 여러 곳에서 법을 전하다가 1943년(원기 28년) 6월 1일 53세로 열반하였다.

2대 종법사가 된 정산종사(1900~1962)는 1946년(원기 31년)에 교명을 '원불교'로 개명하고, 교역자 전문 양성

기관으로 '유일학림'을 개원하였는데, 이것이 '원광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후 종법사의 전통에 의해 대산종사, 좌산종사, 경산종사로 계승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15대 전산종사가 종법사가 되었다.

원불교가 탄생한 전라남도 영광군은 현재 3읍 8면(영광읍, 흥농읍, 백수읍, 법성면, 군서면, 염산면, 근남면, 불갑면, 묘량면, 대마면, 낙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길용리가 위치하는 백수읍은 1914년 구수, 영마, 봉산을 통합하여 백수면이라고 했고, 1980년 백수읍으로 승격했다. 백수읍 길용리에는 8개의 마을(영촌, 구호, 범현, 잠실, 용암, 운암, 입석, 덕호동)이 있는데, 이 중 영촌마을에는 박중빈의 생가가 있으며, 박중빈이 기도했던 삼발재 마당바위와 노루목 대각지(大覺地)가 있다. 그리고 범현마을에는 영산성지(靈山聖地)와 최초 간척지인 정관평(貞觀平)이 있다(그림 2).

### 3. 갱정유도(更定儒道)의 형성과정

갱정유도는 1944년 전라북도 순창 출신인 강대성(영신당, 1889~1954)이 창시한 종교이며, 일심교(一心教)라고 부르기도 한다(원래 교명은 '시운기화유불선동서학합일대도대명다경대길유도갱정교화일심, 時運氣和儒佛



그림 2. 원불교의 초기 발생 지역(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자료 : KakaoMap.

仙東西學合一大道大明多慶大吉儒道更定教化一心’, 28자). ‘갯정유도(更定儒道)’란 유·불·선·동학·서학 등 다양한 사상을 화합하여 유교의 도리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이다. 강대성은 증산교 계통의 종파인 보천교의 신도이기도 하였다.

강대성은 1890년 전라도 순창군 구림면(1935년 구암면 + 무림면 = 구림면) 구암리 봉곡마을에서 출생하여, 1906년(16세)에 처음 결혼했으나 해로하지 못하고, 1917년(27세) 문씨와 결혼하여 아들 용학(1918~1940)을 낳았다. 1919년(29세) 3.1운동에 참여하여 옥고를 치루었으며, 모친의 3년상 후에는 정읍 산내면(매죽리 진삼동)으로 이주했고(1922년), 이후 순창 쌍치면 용전리 묵산마을(산정안) 처가 동네에서 수련을 했다. 1928년(38세)에는 부인 문씨와 아들 용학(10세)과 함께 순창 회문산 금강암에서 수련을 하던 중 1929년(39세) 7월에 도통하였고, 1930년(40세) 5월 4일 3인의 영혼을 바꾸는 부부자(夫婦子) 3인의 생사교역(生死交易)이 이루어졌으며, 이때 부인 문씨가 사망했다(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5:103; 윤용복, 2006:98).

1934년 아들 용학 및 제자 7명과 함께 진안 운장산에 들어가 수련하면서 갯정유도의 핵심 경전인 ‘해인경(海印經)’을 저술했다. 이곳에서 6년 동안 수련하다가 1940년 정읍 태인면(수통골)으로 이주하였고, 이곳에서 아들 용학이 사망하였다. 1941년에는 7인의 제자와 함께 진

안 운장산으로 다시 이동하여 화전을 가꾸면서 갯정유도의 경전인 ‘부응경(符應經)’ 365권을 완성했다. 그리고 1944년 순창 회문산 장군봉 도령터에서 최초로 성당(聖堂)을 건립하고, 광복을 예언하면서 본격적인 포교를 시작하였는데(한재훈, 2007:18), 이 시기를 갯정유도의 형성시기로 본다.

1949년에는 7인이 1개의 응성(應星)을 이루는 조직으로 36개의 응성을 조직하여 전국에 파송하는 대포덕운동을 전개했다. 1950년 6.25 이후에는 순창 회문산에서 남원읍(현재 남원시 천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1951년에는 김제 광활면 은파리 학동마을로 옮겨 체제를 정비하였다. 1954년에는 대화중흥국(大和中興國) 사건<sup>1)</sup>에 연루되어 전북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후유증으로 8월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전국의 신도는 56만 명으로 추정된다(주간경향, 2008년 8월 19일자).

1954년 강대성의 사망 후 3개의 분파로 분열되었으나, 1958년 김갑조(계도선사)가 2대 교조가 되었고, 본부를 남원군 남원읍 도동리로 옮겼다(한재훈, 2007:22). 당시 신도수는 5만 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10장 14조로 이루어진 도헌을 제정하고 공식명칭을 ‘갯정유도’로 정했으며, 남원 본부를 비롯하여 순천, 논산, 공주, 정읍, 청학동, 고창, 이천, 여수 등 30여 곳에 교당을 두었다(윤용복, 2006:100).

1965년에는 5백여 명의 신도들이 상경하여 서울시위

사건을 벌였으며, 1984년에는 임진각 대제를 거행했고, 1985년에는 충무였던 한양원이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조직했다(윤용복, 2006:112). 1996년 현재 전북 남원시 도통동 300번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교단 대표는 이성수(李性洙) 도정이다. 교당은 36개소가 있고, 178명의 교역자와 49,450여 명의 신도가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갱정유도’). 신자들은 모두 한복을 입는다.

갱정유도의 교리체계는 신앙대상인 선당궁(仙堂宮)과 경전인 부응경(符應經), 기본교리인 생사교역(生死交易)으로 이루어져 있다. 갱정유도가 유교와 다른 점은 신앙대상이 공자가 아니고 선당궁이며, 경전과 종교의 식에서도 차이가 있다(한재훈, 2014:101). 그리고 갱정유도는 교조에 대한 천재성을 나타내지 않은 점, 1인이 아닌 3인의 공동 종교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점, 동서양의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포용적이라는 점 등에서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윤용복, 2006:108).

### III. 호남 3개 종교의 확산과정

3개 종교는 종교성립 이후 승계과정에서 다른 경로를 경험하였고, 종단의 교단체계와 전파방법 그리고 전파 지역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원불교가 대종사 체제로 일관된 지도체계를 유지하면서 전국적 체계를 갖춘 반면, 증산교는 강증산 사후 다양한 종파로 분파되었으며, 갱정유도는 일관된 지도체계를 유지하였지만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으로 전파가 이루어지는 등 종교별로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종교별 교단체계 및 전파와 확산 과정을 살펴본다.

#### 1. 증산교의 확산과정

증산교는 창시자인 강증산 사후(1909년) 다양한 종파로 분파되었는데, 부인과 딸 등의 가족그룹과 김형렬과 차경석 등의 제자그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각 종파의 연고 지역에 따라 확산하는 비지적(飛地的) 이전전파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표 2).

하지만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와 청도리 지역은 증산교의 핵심지역으로의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광계국(동곡약방), 대순진리회 수련원(천안방면), 증산법종교(강일순과 정치순의 부부묘), 순천도(계

룡법방, 용화동), 인정도덕원(본주성지, 용화동), 증산교 본부(용화동) 등이 위치하고 있다.

증산교는 1909년 창시자인 강증산의 사망 이후 가족이었던 부인(고판례, 태을교)과 딸(강순임, 증산법종교)에 의해서 교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교파 중에서 가장 큰 교파는 차경석(1880~1936)에 의해 1921년에 창교된 ‘보천교’이다(전북 정읍시 입암면 대흥마을). 그러나 보천교는 1936년 차경석의 사망과 함께 1938년 일제의 유사종교 해산령에 의해서 축소되면서, 많은 분파로 나누어졌다.

증산교에서는 강증산의 사후에 이루어진 1차 분파와 보천교를 일으킨 차경석의 사망 이후 이루어진 2차 분파로 구분해 볼 수 있다(김성희·유명숙, 1985). 특히 보천교 이후 조철제(1896~1958)에 의해 형성된 ‘무극대도교’는 이후 태극도, 대순진리회, 대진성주회로 분파되었다.

증산교에는 현재에도 60여 개의 종파가 있는데, 이들 종파들은 불교계통(용화교, 증산미륵도, 대한불교미륵종, 대한불교법상종 등), 단군계통(홍익교, 단군성주교 등), 선도계통(선도교 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교파들은 대부분 전라북도 지역이 주요 활동지였으나(김제, 정읍 태인, 남원 등), 분파 창시자들의 연고지에 따라 증산대도교(전남 여수), 삼덕교(경남 하동), 태극도(부산 감천동), 대진성주회(충북 괴산) 등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증산교의 주요 성지는 금산사(766년 진표율사가 증건한 미륵신앙의 본산), 대원암, 광계국(廣濟局, 동곡약방, 구릿골, 일명 오리알 터), 용화동(龍華洞)으로 현재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와 금산리 일대이다(허남진, 2017:180; 그림 3).

이와 같이 증산교는 전북 김제군 금산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종파가 입지하는 특성과 함께, 종파별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서 1920년대에는 ‘보천교’가 교세를 떨쳤고, 2000년대 이후에는 ‘대순진리회’와 ‘대진성주회’가 가장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대순진리회는 1925년 조철제(趙哲濟, 1896~1958, 경남 함안 출신)에 의해서 창시된 무극도(無極道, 전북 정읍 태인 대흥리)에서 비롯되었는데, 무극도는 1941년 일제의 유사종교 단체 해산령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 1948년 부산(감천동)에서 종단을 다시 일으켜 태극도(太極道)로 이름을 바꾸었다. 1958년 도주(道主)였던 조철

표 2. 증산교의 주요 종파

관계	관련인물(연도)	종파명(활동지역)	분파
가족	고판례(차)(1911)	선도교(정읍 입암면 대흥마을)	
	고판례(차)(1914)	태을교(김제 백산면 조종리)	
	강순임(딸)(1936)	증산법종교(김제 금산면 금산리)	
제자	안내성(1913)	증산대도교(김제 금산면 백운동)	
	김형렬(1915)	미륵불교(김제 금산면 청도리)	순천도(1920, 장기준, 김제 황산면 남양리)
	이치복(1916)	제화교(김제 금산면 원평)	
	차경석(1921)	보천교(정읍 입암면 대흥마을)	증산교본부(이상호, 1928, 김제 용화동) 삼성교(채경대, 1924, 만주 길림성) 선도교(서상섭, 1937) 무극대도교(조철제, 1923) : 태극도(1958), 대순진리회(1969), 대진성주회(1999) 인정도덕원(여원월, 태을선도, 1946, 용화동)
	박공우	태을교(정읍 태인)	
	김광찬	증산교 도리원파(남원)	
	문공신	태을교(정읍, 김제, 고창, 부안)	
	배용덕(1973)	증산진법회	

출처 : 김성희·유명숙, 198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증산교’).



그림 3. 김제시 금산면(용화동)의 증산교 관련 종파 분포

\* 금평저수지는 1961년 축조.  
자료 : Kakaomap.

제가 사망한 후 2대 도주가 된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은 조철제의 아들(영래)과 같듯이 생기자, 1969년 분파하여 서울 광진구 증곡동에 터전을 잡고 교단명을 ‘대순진리회’로 바꾸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대순진리회’).

대순진리회는 사회와 단절하고 폐쇄적 생활을 하던 부산시절과는 달리 서울에서는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사회활동을 전개하여 교세가 크게 확장되어, 1971년 종단의 도장을 완공하고, 1984년에는 대진학원을 설립하였으며, 1993년에는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으로 종단의 본

부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1996년 박한경의 사망 이후 대순진리회와 대진성주회로 나뉘어졌다.

이와 같이 증산교는 전북 김제 금산면 동곡약방에서 시작하여, 분파 중에서 세력이 컸던 보천교(정읍시 입암면 대흥마을, 1921~1936), 그리고 현재는 대순진리회와 대진성주회 등(2000년대) 세력을 확장한 분파 중심으로 확산이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즉, 증산교의 지리적 핵심지역은 전북 김제 금산면이며, 확산 과정은 세력을 얻은 분파가 증산교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확산이 이루어지고, 종교의 확산 지역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 원불교의 확산과정

한국에서 발생한 신종교의 성지관념은 첫째, 교조의 종교체험과 관련된 장소(원불교의 영산성지), 둘째, 교조와 성인의 행적과 관련된 장소(증산교의 동곡약방, 원불교의 영산성지, 변산성지, 익산성지), 셋째, 교조와 성인의 유해가 묻혀있는 장소(원불교의 익산성지, 증산교의 삼청전), 넷째, 종교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원불교의 영산 성지, 변산성지, 익산성지), 다섯째, 현재의 이상세계 건설지(증산교의 용화동, 갯정유도의 청학동)이다(허남진, 2017:173).

원불교에는 성지가 5곳이 있는데(영산, 변산, 익산, 만덕산, 성주), 성지를 중심으로 초기 확산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영산성지(근원성지)는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를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박중빈(소태산 대종사)이 탄생하여(1891년) 구도의 고행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1916년) 교화를 시작한 원불교의 발상지이다. 원래 영산은 부처가 설법을 하고 교화를 하였던 영산회상을 의미하는데, 이곳을 영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23년 옥녀봉 아래에 있던 구간도실을 지금의 장소로 옮기고 영산원이라고 하면서부터이다. 영산성지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가, 삼밭재 마당바위, 결혼하여 살았던 구호동 집터, 깨달음을 얻은 노루목 대각 터, 최초의 교당 구간도실 터, 최초의 간척사업을 했던 정관평(범현마을) 등이 있다.

두 번째 성지는 변산성지(1919~1924)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내변산에 위치하며 제법성지(制法聖地)로 불린다. 박중빈은 1919년 월명암에서 머물다가 실상사 옆 실상초당에서 지내면서, 원불교 초기교서인

‘조선불교혁신론’과 ‘수양연구요론’을 초안하였다. 1921년에는 찾아오는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실상초당 위쪽에 초가집을 짓고 석두암이라고 불렀는데, 석두암과 실상초당을 합하여 봉래정사라고 칭한다. 변산성지는 익산 총부 건설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창립인연들을 만난 곳이다.

세 번째 성지는 익산성지(1924~현재)로 1924년 당시 익산군 북일면 신룡리(344-2번지 11,554㎡)에 총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9월에 땅을 매입하였다(1912년 이리역 개설). 이곳은 전법성지(傳法聖地)로 현재 원불교 중앙총부가 있는 곳이다(현재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네 번째 성지는 만덕산성지(1922, 1924)로 전라북도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만덕산 남쪽 기슭 8부 능선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소태산 대종사가 1922년 말부터 3개월 머물렀고, 1924년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만덕암을 다시 찾아 12명의 제자와 한 달 동안 선회를 열었던 곳이다. 만덕암은 소태산 대종사·정산종사·대산종사로 이어지는 원불교 3대 주법(主法)이 최초로 만난 곳으로, 만덕암이 자리했던 터를 초선터, 이 일대를 만덕산성지라고 부른다.

다섯 번째 성지는 성주성지로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해 있으며, 원불교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1900~1962)가 태어나고 구도를 시작한 곳이다. 정산종사는 1918년 봄에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 제자가 되었는데, 성주 소성리에는 정산종사가 태어난 구성마을, 성장지인 소야마을, 구도 터인 박실마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원불교는 소태산 대종사가 태어나 깨달음을 얻은 영산성지(근원성지), 법을 제정하며 머물렀던 변산성지(제법성지), 총부를 건설하고 법을 전하는 익산성지(전법성지)로 이동함에 따라 제자들이 함께 움직였고 사람들이 모여들며 교단이 발전하였다. 원불교에서는 영산, 변산, 만덕산, 익산 일대를 대성지(4개), 박중빈 열반 후 원불교 법통을 계승한 정산종사가 태어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성주성지)를 성지(1개) 구분하고 있다(허남진, 2017:184).

한편, 원불교는 ‘타자녀 교육’의 교리에 입각한 교육평등정신에 의해 교육사업에 힘을 써서 8개의 학교법인(원불교대학원·원광학원·원창학원·영산학원·영산성지학원·원경학원·삼동학원·해룡학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관과 의료기관 등은 원불교의 전파와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림 4. 원불교의 5대 성지

원불교에서 종법사는 원불교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지금까지 5명의 종법사가 있었는데, 교조 소태산(少太山) 박중빈(영광 백수, 종법사 재임기간, 1916~1943), 정산(鼎山) 송규(성주 초전, 1943~1962), 대산(大山) 김대거(진안 성수, 1962~1995), 좌산(左山) 이광정(영광 대마 1995~2006), 경산(耕山) 장웅철(신안 장산도, 2006~2018) 그리고 전산(田山) 김주원(2019~현재)이다.

원불교는 교단을 총괄하기 위하여 익산에 중앙총부를 두고, 종법사와 수위단회(首位團會)·중앙교의회(中央敎義會)·교정원(敎政院) 및 감찰원(監察院)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별로 국내 15개의 교구와 500여 개의 교당이 있으며, 해외에는 5개 교구(미주동부교구·미주서부교구·유럽교구·일본교구·중국교구)와 40여 개의 교당이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원불교’).

이와 같이 원불교는 5개의 성지와 함께 확산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발상지인 길용리 영산(전남 영광군)과 총부가 있는 익산성지(전북 익산시)가 지리적 핵심지역이다(그림 4).

### 3. 갱정유도의 확산과정

갱정유도는 강대성이 1929년 순창군 회문산(금강암)에서 깨달음을 얻고, 1944년에 순창 회문산 도령터에 최

초의 성당을 건립하면서 본격적인 포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남원(1950)과 김제시 광활면으로 이전했고(1951), 1954년 교주 강대성의 사망 후 2대 교주(김갑조) 때는 남원시 도통동(1957)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경남 하동군 목계리 학동마을(청학동)과 고창군 신림면 덕화리 유점마을, 부안군 변산면 신선동 등지에 신자촌을 형성하여 생활했다.

증산교와 원불교가 교육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을 통한 전교활동을 하면서 도시로 진출한데 반하여, 갱정유도는 전통생활 고수의 교리로 농산촌으로 전파가 이루어졌다. 특히 1954년 대화중흥곡 사건 이후 경찰의 발본색원 방침에 따라 교세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열성적인 신자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지리산의 청학동, 여천, 논산, 변산, 거제도, 고창, 부안 등의 오지를 찾아 몇 가구씩 모여 살며 농사짓고 글을 가르치는 은둔과 수양생활을 했다.

갱정유도의 창시자인 강대성이 사망한 이후(1954년) 한때 3개파로 분열되기도 했으나, 이 중 남원본부파가 주류를 이루어 2대 교주로 김갑수가 선출돼 교단을 이끌었다. 이후 김갑수, 이성수, 한양원(1923~2016)으로 교주가 이어져 오고 있다. 전북 남원시 도통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 때 신자의 수는 50만여 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1996년 기준으로 교당 36개소, 수련당 6곳, 178명의 교역자, 5만 여 명의 신도가 있었으나, 신도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주간경향, 2008년 9월 2일자; 2008년 기준, 약 3만명).

갱정유도 신도들은 여러 지역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곳이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의 청학동(靑鶴洞)이다. 갱정유도 신도들의 청학동 이주는 1954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1973년에 언론에 소개되고, 1986년에는 행정지명으로서 청학동으로 명명되었다(고원규, 2006). 199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관광상품화하고 명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최원석, 2014:435).

현재 청학동에는 삼성궁(1983년 선사 강민주 조성)을 비롯하여 청소년 수련원, 천제단, 학당 및 서당 등의 갱정유도 관련시설이 있다(그림 5). 회문산 경화궁 서당, 군산 인원한문학원, 고창 용추골 서당 등 갱정유도 서당은 청소년에게 전통예절과 한문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청학동(靑鶴洞)은 예로부터 전해 오던 도인들의 이상



그림 5. 청학동의 관광지 관련 시설(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자료 : Kakaomap.

향을 말하는데, 청학은 중국의 문헌에 나오는 ‘태평시절과 태평한 땅에서만 나타나서 운다’는 전설의 새에서 유래했다. 청학동은 고려시대부터 지리산지의 토착지방민, 승려 및 영호남 유학자들에 의해 선경·복지의 장소 이미지로 인지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의 유산행(遊山行) 지역이었으며, 조선 중·후기에는 지리산 주변의 의신, 덕평, 세석 등지에 외지의 주민들이 전입하여 청학동 마을을 이루면서 풍수·도참의 명당길지라는 장소이미지가 형성되었다(최원석, 2009:746).

지리산 청학동이 문헌에 등장한 것은 이인로(고려시대, 1152~1220)의 ‘파한집(破閑集)’이고,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부터로 전해진다(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감시를 피해 사람들이 이주해오기도 했고, 광복 이후에는 빨치산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퇴거당하기도 했었다(최원석, 2010:138).

지리산 청학동은 고려 후기 경남 하동 쌍계사 부근의 불일폭포와 불일평전, 불일암 일대로 비정되었다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인근의 의신, 덕평, 세석, 목계 등지로 확장되었다. 최초 비정지인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부근(불일폭포)에서, 남쪽의 매계(악양면 매계리), 북쪽으로 하동 의신, 덕평(화개면 대성리), 세석평전(산청군 시천면), 동북쪽의 청암면 목계리(학동, 청학동) 등으로 공간적 변이가 나타났다. 현대에 와서는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일대로 재구성되고 장소이미지를 활용한 장소마케

팅의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다(최원석, 2009:746).

갯정유도 신자들은 1954년 이후 목계리 학동마을에 정주하여, 외부와 교류를 차단한 채 독특한 생활방식을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1992년부터 관광상품화를 통해 개방되면서, 풍수도참사상의 명당과 길지라는 이념적 코드가 되었으며(최원석, 2010:138), 설화와 상상의 장소 등의 관념적 공간이 구체적인 생활공간으로 구현된 곳으로, 지리산이라는 자연공간에 이상향이라는 장소정체성이 구축된 역사문화적 산물이 되었다(최원석, 2014:415).

#### IV. 종교별 지역 확산의 특성

모든 종교는 사회적 실체를 가진 조직으로, 종교의 조직은 내부적으로는 신앙공동체를 형성·운영하고, 교리를 대사회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우혜란, 2019:2). 호남 지방에서 발생한 3개 종교는 전라도의 김제, 영광, 순창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 중산교의 가장 큰 세력인 대순진리회의 본부는 경기도 여주시에 있고, 원불교의 본부는 전북 익산시 그리고 갯정유도의 본부는 전북 남원시에 있는 등 종교발생지와 현재의 핵심 지역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원불교가 전국에 15개 교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이루고 있는 반

표 3. 호남 3개 종교의 특징

	발생지	핵심지역	종단조직	사회활동	영향종교
증산교	김제	김제, 여주	분파별	교육, 의료, 복지	동학
원불교	영광	영광, 익산	일관조직	교육, 의료, 복지	불교
갱정유도	순창	남원, 하동	일관조직	청학동, 수련원, 서당	증산교

면, 증산교와 갱정유도는 상대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분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표 3).

### 1. 증산교의 지역적 특성

증산교는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와 금산리 일대 ⇒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보천교) ⇒ 분파에 의한 전국 확산 ⇒ 대순진리회에 의한 확산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종파의 형성에 의해서 확산되고, 종교가 발생한 지역(김제)보다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활발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특히 젊은 사람들을 포교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지만 증산교가 발생한 전북 김제군 금산면은 핵심 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계속되고 있다.

1909년 강증산의 사망 이후 부인인 고판례(또는 고부인, 셋째부인, 영적부인)를 중심으로 종교(선도교)가 이어지다가, 이후 수제자들에 의해서 각자 교통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종파를 형성하였다. 이때를 1차 분파라고 하는데, 수석 제자였던 김형렬의 미륵불교(금산면 청도리 동곡), 안내성의 증산대도교(금산면 청도리 백운동 도통사, 1927년 이주), 김광찬의 도이원파(남원) 등이 있다.

그리고 증산교의 분파였던 보천교(신도가 200만 명이름)가 해산된 이후 2차 분파가 일어났는데, 이상호와 이정립 형제의 증산대도회(금산면 금산리 용화동, 현재 증산교본부파), 조철제의 태극도(부산, 현재 대순진리회), 강순임의 증산선불교(강증산의 딸, 현재 증산법종교) 등이 있다. 이후 몇 차례(1949, 1955, 1961)의 통합 노력이 있었으나 효과는 없었다. 증산교는 56개 종파 중 38개가 전북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김제와 정읍에 집중도가 높다(이상오, 1975:160). 특히 김제 지역의 경우 1971년 모악산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독가촌을 철거하고 용화동의 계룡마을에 정착촌을 형성하였다(김성희·유명숙, 1985).

현재 김제 금산면의 금산리에는 순천도의 계룡법당

(장기준, 1920), 인정도덕원(본주성지, 여원일, 1946), 증산교본부(이상호, 1947), 증산법종교(딸 강순임과 첫째 부인 정치순의 묘), 동곡약방(청도리 동곡마을), 대순진리회(천안방면)의 상생청소년수련원 등이 분포하고 있다.

가족 분파로는 강증산의 첫 번째 부인인 정치순(1874~1928, 1891년 결혼)의 딸인 강순임에 의해서 강증산과 정치순의 시신을 모신 증산법종교(금산리 434-2번지)가 있으며, 세 번째 부인인 고판례(1880~1935, 1907년 결혼)는 1911년 강증산의 3년상 때 접령으로 정통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증산교의 분파 중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것은 1921년에 창교한 보천교(차경석)였다. 보천교(普天敎)의 중심지였던 대흥마을은 전북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대흥마을과 마석리 신마석 마을이다(유재영, 1993:202). 대흥마을은 보천교의 창시자인 차경석(1880~1936, 부친 차치구는 동학 지도자로 고창에서 사형당함)의 출생지이다. 고판례는 1911년 종교적 접령 이후 차경석과 함께 증산교를 이끌다가(선도교), 1914년 차경석과 헤어지고 김제 백산면 조종리로 이주하였다(태을교). 이후 차경석은 경남 함양군의 황석산에서 고천제(告天祭)를 올리고 보화교(1922년)로 개칭하면서, 대흥마을에 중앙교당(1925.1~1929.3, 1만평)을 신축하였는데, 대흥마을은 10여호의 농촌마을에서 1930년대에는 550여호에 이르게 되었다(김용근, 1989:18). 특히 중앙교당내의 중앙성전인 '십일전(十一殿)'은 황색 기와와 만주와 러시아에서 가져온 목재를 사용하였는데, 1936년 보천교 해체 이후 서울의 조계종 건물 축조에 사용되었다. 대흥마을은 직교형태의 가로망을 구축했으며, 많은 인구로 인하여 직조공업이 도입되었는데 이 곳에서는 1960년대 까지도 직조공업이 발달했었다(김용근, 1989:35).

그리고 대순진리회를 창교한 박한경(朴漢慶, 1917~1996)은 1946년 조철제(趙哲濟, 1895~1958)가 창교한 무극도(無極道)에 입도하였고, 1958년 조철제의 사망이후 태극도에서 나와, 1969년 서울 중곡동에 대순진리회를 창설하였다(박인규, 2019:73). 당시 태극도 수도인은 전

표 4. 원불교 15개 교구와 해외교구

교구명(중심위치)	교구명(중심위치)
1. 중앙교구(익산)	11. 광주전남교구(광주)
2. 강원교구(춘천)	12. 제주교구(제주)
3. 경기인천교구(수원)	13. 영광교구(영광)
4. 서울교구(서울)	14. 군중교구(논산)
5. 대전충남교구(대전)	15. 평양교구(서울)
6. 충북교구(청주)	*해외교구(5개) : 미국동부교구(NY), 미국서부교구(LA), 일본교구(도쿄), 중국교구(베이징), 유럽교구(프랑스)
7. 경남교구(창원)	
8. 대구경북교구(대구)	
9. 부산울산교구(부산)	*성지 : 익산성지, 영산성지, 변산성지, 성주성지, 만덕산성지
10. 전북교구(전주)	

출처 : 원불교(www.won.or.kr); 원불교중앙총부, 2015.

국적으로 10만 명 정도였고, 부산 감천에 약 3,000호가 모여 살고 있었다.

대순진리회는 중앙집권적 중앙조직과 연운제(緣運制)를 기초로 하는 분권적 ‘방면조직’을 갖추고 있는데, 연운제 조직의 기본단위인 ‘방면(方面)’은 지역에 기초한 ‘교구’와는 다른 개념이다(박상규, 2013:275). 포덕 호수를 기준으로 1,000호가 되면 하나의 방면이 형성되며, 각 방면은 해당 방면 수입원의 고향이나 살았던 지역 등에 의해서 명칭이 정해진다.<sup>2)</sup> 따라서 방면의 이름과 활동지역은 일치하지 않는다(박인규, 2019:72).

1996년 설립자인 박한경이 사망한 이후 종단은 네 그룹(천안방면, 서울방면, 성주방면, 여주본부도장 중심방면)으로 분열되었다(우혜란, 2019:18). 2019년 현재 전국에 5곳의 도장(여주본부도장, 중곡도장, 포천수도장, 금강산토성수련도장, 제주 수련도장)과 100여 곳의 회관과 3천여 곳의 포덕소를 보유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대진대학교(1992)를 비롯하여 6개의 고등학교와 분당 제생병원(1998), 복지재단(2007) 등이 있다. 천안방면(서울 중곡도장)은 증산의 활동지인 김제 금산면에 상생청소년 수련원을 건축하였고, 박한경의 탄생지 괴산군을 성역화했다(박인규, 2019:90). 그리고 성주방면은 ‘대진성주회(大眞聖州會)’로 단체명을 변경하여(1999) 독자적인 활동을 진행하였는데, 도장(중원도장, 대구도장, 부산도장, 대진강원수련도장)과 10여 곳의 회관이 있으며, 병원, 실버타운, 호텔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박한경의 탄생지인 충북 괴산군에는 4년제 종합대학교인 ‘증원대학교(2009)’를 설립하였다.<sup>3)</sup>

대순진리회의 신도는 1976년 당시 총 93,735명 중 서울권이 15.9%, 경기도 14.5%, 경상도 33.7%, 충청도 24.6%, 강원도 8.4%, 전라도 3.0%로 태극도 신도들이 많았던 경상도 지역의 비율이 높았다(장병길, 1976:203; 박인규, 2019:75). 그러나 1998년 자료에서는(전국 도인 1,953,483명) 서울경기 38.5%, 경상 38.1%, 충청 9.5%, 전라 8.1%, 강원 3.2%, 제주 1.2%로 서울·경기의 비율이 높아졌다(대순진리회 교무부, 1999; 박인규, 2019:76).

## 2. 원불교의 지역적 특성

원불교는 전남 영광군 ⇒ 전북 부안군 변산면 ⇒ 익산시 신흥동으로 지역확산이 이루어졌으며, 학교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전파 확산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종파의 형성이 없이 종단 전체가 하나의 체제로 이루어지고, 5개의 핵심지역(성지)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심지역은 영광과 익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사업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sup>4)</sup>

원불교는 명문화된 각종 헌규 및 위원회 결의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는 높은 공식화 수준을 유지하며, 종법사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구축하고, 최상위의 종법사(또는 수위단회)로부터 최하위 조직인 교당에 이르기까지 9단계로 높은 조직 분화와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시용, 2013:31). 1943년 소태산이 열반할 때 25개 교당이었으나, 1984년 12월에는 388개에 이르렀는데, 이

중 전북이 130개, 전남이 60개였다(추진경·유재순, 1986). 현재는 전국 15개의 교구와 500여개의 교당, 그리고 해외 5개의 교구로 이루어져 있고, 중앙총부는 익산에 위치해 있다(표 4).

원불교의 초기 확산과정에서 총부가 위치한 전북 이리(현재 익산)를 중심으로 한 전염전파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교구를 설립하여 전파한 계층전파를 동시에 진행했다(송영경·신중성, 1991:30). 1916년부터 1990년까지 원불교의 확산과정을 5기로 나누어 보면(송영경·신중성, 1991:31), 1916~1930년 사이에는 1924년 이리 총부, 1927년 영광 교당 그리고 서울과 부산에 교당을 세웠다. 그리고 1931~1945년 사이의 침체기에는 주로 전북과 경남(남해, 진양, 김해)에 교당을 설립했다. 해방 이후인 1946~1960년 사이에는 강원도, 대구, 충남, 전남, 경남으로 확대하였으며, 1961~1975년 사이에는 경기, 충북, 경북, 제주 진출 등 전국적 확대로 이어졌다. 1976년 이후에는 서울과 부산 등의 대도시 신도수가 증가했는데, 1990년 기준으로 교당수는 총 400개(전북(103), 서울(52), 전남(51), 경남(45), 부산(44)) 등이며, 신도수(1,140,528명, 원불교 총부 자료, 1990)는 전라도(29.4%), 서울(16.9%), 부산(12.6%) 등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송영경·신중성, 1991:12), 전라도 중에서도 특히 전라북도의 비중이 높다.

서울의 경우 1926년 종로구 창신동에 교당을 설립한 이후 52개의 교당이 있는데, 1920년대(1), 1950년대(2), 1960년대(9), 1970년대(22)의 순으로 설립되었다. 서울은 교당수에서는 12.8%, 신도수에서는 16.9%를 차지한다(1990년 기준). 이와 같이 원불교는 발상지인 전라도의 신자수가 가장 많고, 타 지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 3. 갱정유도의 지역적 특성

갱정유도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청학동)와 같이 여러 곳에 신도촌을 형성하고 있는데, 순창 회문산 ⇒ 남원 천거동 ⇒ 김제시 광활면 은파리 학당마을 ⇒ 남원시 도통동 ⇒ 청학동으로 확산되었으며, 36개의 교당이 있다. 단일 종파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에 집중 분포하는데, 최근 청학동을 개방하는 등 폐쇄적인 측면에서 개방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일부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갱정유도는 초기(아내와 아들), 일제강점기(30여명), 1945년(60여만 명), 1980년(3만 명)으로 신도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류효준·한섭, 1987). 남원시 도통동의 본부와 함께, 서울 용산구에 민족종교 사무실이 있으며, 전북 지역(남원 산동 대상리, 일원면 자래리, 운봉읍 장기리, 정읍 영원 신영리, 순창 구림면 구암리, 고창 성내면 용교리, 고창 신림면 덕화리, 익산시 목천동), 전남 지역(광양, 여수, 순천, 하동, 구례, 광주, 벌교, 보성, 나주, 무안, 장흥, 진도, 함평), 충청도 지역(공주, 대전), 경상도 지역(의성, 울진, 부산, 대구, 함양, 진주) 그리고 하동군 청학동 등지에 신도촌을 형성하고 있다(류효준·한섭, 1987).

청학동은 경남 하동면 청암면 목계리(1914년 이전 높은터, 삼거리, 학동, 세동, 장재, 회동, 새터 마을 지역)로 학동 마을을 지나 횡천강 상류인 800~860m 지점으로 25가구 160인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류효준·한섭, 1987). 청학동에는 1910년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는데, 1954년 폐허가 된 이곳에 촌장인 서계룡 등의 갱정유도인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마을의 지도층으로는 촌장, 총무, 훈장이 있으며,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선당관(仙堂官)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청학서당과 가옥이 분포해 있다(류효준·한섭, 1987).

청학동의 갱정유도 신도들은 자발적 인도 방법을 주장하고, 주민들은 자발적인 이주자가 대부분이며(특히 전남에서), 1970년대 전북 부안군의 신선동(진서면 석포리 해발 300~400m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도 있다(류효준·한섭, 1987). 하지만 서울의 민족종교 사무실은 적극적인 포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1985년에 창립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원불교, 대종교, 증산교본부, 갱정유도회 등 25개 교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갱정유도의 교정이었던 한양원(1922~2016)이 회장을 맡기도 했다.

10장 40조로 구성된 도헌(道憲)이 있으며, 도맥을 잇는 법통전승과 행정조직으로 구성된다. 도정(道正)을 중심으로 5부와 운영위원 36명이 도중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교육은 남학생의 숙당(塾堂)과 여학생의 양당(孃堂)으로 나뉘는데, 남원본부, 순천, 논산, 정읍, 고창, 지리산 등에 있으며, 경전인 부응경을 체(體)로 하고 사서삼경을 용(用)으로 한다. 신도는 5만명 정도이다(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5:119).

#### 4. 종교별 공통점과 차이점

확산(diffusion)은 확산발생원의 이동여부에 따라서, 확산발생원의 위치는 고정된 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수용율을 높이면서 주변으로 확산이 일어나는 팽창확산(expansion diffusion)과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같이 확산발생원 자체가 이동하면서 확산되는 이전확산(relocation diffu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확산의 진행 방법의 차이에 의해서, 직접접촉이 확산의 원인이 되어 거리와 교통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염확산(傳染擴散, contagious diffusion)과 발생원과 수용지간에 계층성이 존재하는 계층확산(階層擴散, hierarchic diffus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장재훈 등, 1981:161).

신종교의 포교방식은 지역이나 기구중심이 아닌 연원제(淵源制)라는 교인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속인제(屬人制)를 활용하였다(박상규, 2008:161; 우혜란, 2019:15). 따라서 1차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포교하는 전염확산이 이루어지고, 2차적인 방법으로 본부를 이동하면서 다시 주변에 포교를 강화하는 이전확산 방식을 이용하였다. 특히 증산교에서는 종파에 따라 이전확산이 활발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포교의 진행방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주변으로의 전염확산을 기반으로 하였는데, 원불교에서는 서울과 대도시에서 교구를 설치하는 계층 확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갯정유도는 전염 확산과 팽창 확산을 기본으로 하고, 계층 확산은 볼 수 없다(표 5).

증산교는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형성하지 못하고, 가족그룹과 제자그룹에 의해서 다양한 종파가 형성되었고, 그들의 활동 지역으로 이전 확산의 특징을 보인다. 새로운 종파의 구성으로 다양한 지역에 거점이 마련되는 비지적인 전파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주변 지역으로 전염전파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창립자인 강대성이 처음 활동했던 김제시 금산면의 장소적 관성이 강해서 금산면(금산리와 청도리)에는 다양한 분파들의 본산이 집결되어 있다. 즉, 증산교는 전국

적인 분포를 보이지만, 증산교의 본원 지역인 김제시 금산면에 강한 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불교는 중앙집권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와 익산시 신용동이 지리적 핵심지역을 이루고 있다. 전국(15개)과 해외(5개)를 포함하여 20개의 교구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 및 의료 등의 사회활동이 활발하다. 전파과정에서는 영광과 익산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의 전염 및 팽창 확산과 서울, 부산, 대구 등으로의 계층 확산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북과 경남 지역이 초기에 전파가 이루어진 데 비하여, 강원도와 충청도 그리고 경북 지역의 확산은 비교적 뒤에 이루어졌다.

갯정유도는 회문산에서 시작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청학동 등에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촌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원불교 및 증산교와는 다른 특성과 확산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서울의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 전파를 주장하는 파와 청학동 중심의 자연적 전파를 주장하는 파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청학동 개방을 시도하는 등 장소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확산 및 일반인에게 인식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갯정유도는 종교의 전파에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전파 방법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다른 2개의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표 6).

#### V. 결론

1861년 국내에서 발생한 동학 이후 호남 지방에서 출현한 증산교, 원불교, 갯정유도의 3개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의 형성과정, 확산과정 그리고 지역적 전개에서의 종교별 특성을 살펴봤다. 같은 시기, 같은 지역 그리고 유사한 교리를 출발점으로 한 호남 3개 종교의 지역적 확산과정의 차이와 그 차이를 유발한 요인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각 종교별 포교 조직과 확산 유형

종교별	포교 조직	확산 유형
증산교	포덕 호수 1,000호가 되면 하나의 방면(方面)	전염확산, 이전확산
원불교	십인 1단 조직(十人一團)	전염확산, 이전확산, 계층확산
갯정유도	7인이 1개의 응성(應星)	전염확산, 이전확산

표 6. 호남 3개 종교의 확산 전략의 차이

	종단조직	포교 지역	포교대상	핵심지역	사회활동
증산교	분파별	전국적	젊은 층	김제	교육, 의료, 복지
원불교	일관조직	전국적	전체	영광, 익산	교육, 의료, 복지
갱정유도	일관조직	지역적	농산촌	남원	교육(청학동, 서당)

첫째, 증산교는 1902년, 원불교는 1916년, 갱정유도는 1929년 창시자의 깨달음으로 창시되었다. 모두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시기이며, 직간접적으로 동학의 영향을 받았다. 1900년대 초기의 발생 시기적인 측면, 전라도 지역이라는 지역적 측면 그리고 교리상에서 유불선을 통합하려는 교리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둘째, 증산교는 전북 김제 모악산 대원사, 원불교는 전남 영광 길용리 영촌, 갱정유도는 전북 순창 회문산에서 출발하였다. 증산교는 정읍 입암면 대흥마을(보천교)로 확산되었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원불교는 5대 성지를 중심으로 확산하다가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갱정유도는 순창, 진안, 남원, 하동 등에서 확산이 이루어졌다. 증산교와 원불교는 전라북도의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다가 전국적 확산이 이루어졌고, 갱정유도는 전라도의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지역적 특색을 보여준다.

셋째, 종단 조직과 포교 방법에서, 증산교는 창시자의 사후 분파 중심으로 확산이 이루어져 비지적인 이전 확산과 전염확산 형태를 보여준다. 원불교는 종법사 중심의 단일 조직을 바탕으로 영광에서 익산으로 이전 확산과 전국 주요 지점으로 확산하는 계층 확산을 보여준다. 갱정유도는 교조 중심의 단일 조직체계를 중심으로 전염 확산이 이루어졌다.

넷째, 전파방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연원제에 기반한 전염 전파에 기초하는데, 증산교는 1,000명 단위의 방면(方面) 조직, 원불교는 1명이 9명을 포교하는 십인일단(十人一團) 조직, 갱정유도는 7명이 응성(應星)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포교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증산교와 원불교는 교육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한 전파방법으로 외래 종교의 전파방법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며, 갱정유도의 전통 유지 방법은 종교 전파에서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장소성과 전통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포교 대상에서 증산교는 수도권 중심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포교가 이루어졌고, 원불교는 15개 교단

조직을 중심으로 모든 계층에서 전국적인 포교가 이루어졌으며, 갱정유도는 농산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적극성에서 증산교가 가장 공격적인 포교를 한 반면, 갱정유도는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섯째, 종교별 확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의 원인은 교단조직의 차이, 포교방법의 차이, 도시와 농촌 등 주력 포교 지역의 차이, 포교 대상 연령층의 차이 등에 있다. 특히 증산교와 원불교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인 교육, 복지, 의료 기관의 운영은 종교 확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이 3개 종교는 1900년대에 전라도 지역에서 탄생했지만, 교단 조직의 차이, 포교 방법의 차이, 포교 지역의 차이, 포교 대상의 차이가 각 종교의 지역 확산과정과 지역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다.

註

- 1) 대화중흥국(大和中興國)은 새로운 세상이 오면 우리나라가 중흥된 국가가 된다는 의미인데, 1954년 서울에서 갱정유도 신자들이 포교활동의 방법으로 성인 탄생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경찰의 탄압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갱정유도 신자들의 청학동 이주가 시작되었다.
- 2) 대순진리회는 천안방면 중앙연락소(서울 광진구 중곡동), 부전방면 서울부전회관(서울 광진구 중곡동), 성주방면 성수회관(서울 성동구 수정동), 서울방면 동부회관(서울 광진구 자양동), 안동방면 용곡회관(서울 중랑구 망우동), 목포방면 배봉회관(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등 방면명과 관계없이 서울에 회관이 있으며, 용암방면, 옥수방면, 강남방면, 영월방면, 안동방면, 공주방면, 고령방면, 성동방면, 청부방면, 금릉방면, 경산방면, 대구방면, 포항방면, 청도방면, 군산방면, 강릉방면, 도계방면,

- 목포방면 등이 있다(대순진리회 교무부, 1999:144-237).
- 3) 대순진리회는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대진대학교(1992, 경기 포천군 포천읍), 중원대학교(1999, 충북 괴산군 괴산읍) 그리고 대진남고(1984, 서울 노원구 하계동), 대진여고(1988, 서울 노원구 중계동), 분당 대진고(1994,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대진전자공예고(1995, 서울 강남구 수서동), 일산 대진고(1995, 경기 고양시 대화동), 부산 대진전자정보고(1996, 부산 금정구 장전동)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구호자선사업으로 분당 제생병원(1998,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동두천 제생병원(2020,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고성 제생병원(2018, 강원 고성군 토성면)을 설립하였다(대순진리회 교무부, 1999:97; 대진성주회).
- 4) 원불교는 문화사업(원음방송, 원불교출판사, 원불교신문사 등), 산업기관(원광제약, 보화당 한의원, 영산식품, 푸른생명 등), 복지사업(삼동회, 원광효도병원, 중동원 등), 훈련기관(중앙중도훈련원 등) 등과 함께 포교사업을 하였다(원불교중앙총부, 2015:26).

### 참고문헌

고시용, 2013, “원불교의 조직적 특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5, 1-37.

고원규, 2006, “문화의 관광상품화를 통해 본 전통의 재구성 -청학동의 사례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희·유명숙, 1985, 「모악산 일대의 신흥종교 취락의 특성 연구」,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김용근, 1989, “신흥종교취락에 관한 연구 -보천교 발생지 대흥마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홍철·유병덕·양근용, 1997, 「한국신흥종교실태조사보고서」, 익산: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대순진리회 교무부, 1999, 「종단 대순진리회」,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류효준·한섭, 1987, 「갱정유도취락의 공간구조 연구 -청학동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과(지리전공).

박맹수, 2015, “동학계 신흥종교의 사회운동사” 한국종교, 38, 133-157.

박상규, 2008, “한국 신흥종교의 연원제” 동아시아종교문화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 161.

박상규, 2013, “대순진리회의 조직과 그 특성” 종교연구, 70, 251-291.

박용덕, 1989, “소태산의 조합운동과 길용리 간척사업에 관한 연구” 정신개벽, 78, 21-80.

박인규, 2019, “대순진리회 조직체계의 변화와 그 특성” 신종교연구, 40(40), 63-95.

송영경·신중성, 1991, “한국 원불교의 확산 및 공간분포에 관한 연구” 응용지리, 14, 1-33.

우혜란, 2019, “한국 신흥종교의 조직구조 -그 연구 경향과 미래의 연구과제-” 신종교연구, 40(40), 1-34.

원불교중앙총부, 2015, 「원불교 100년」, 익산: 교정원문화사업부.

유재영, 1993, 「전북 전래지명 총람」, 서울: 민음사.

윤용복, 2006, “갱정유도의 역사와 사상” 종교연구, 43, 95-117.

이강오, 1975, “한국신흥종교의 개관” 「최일은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유림출판사, 160-164.

장병길, 1976, 「증산종교사상」,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장재훈·허우궁·김주환, 1981, 「공간구조」, 대학교재출판사.

전주역사박물관, 2015, 「꽃심을 지닌 땅 전주 1: 역사문화 편」, 성남: 북코리아.

최원석, 2009, “한국 이상향의 성격과 공간적 특징 -청학동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4(6), 745-760.

최원석, 2010, “장소 정체성의 사회적 재구성 : 지리산 청학동에 대한 역사지리적 고찰” 문화역사지리, 22(1), 130-145.

최원석, 2014, 「사람의 산 우리 산의 인문학」, 파주: 한길사.

추진경·유재순, 1986, 「종교취락으로서의 송내마을의 특성 연구 -진안군 마령면 송내마을」,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한국민족종교협의회, 2005, 「한국민족종교」, 서울: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한재훈, 2007, “특집 : 신흥종교와 경전 ; 경전의 성립과정으로 본 갱정유도사” 신종교연구, 17, 11-32.

한재훈, 2014, “『유교계 종교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갱정유도의 ‘유도시대』” 한국종교, 37, 89-118.

허남진, 2017, “한국 신흥종교 성지의 양상과 특징” 한국종교, 42, 173-201.

주간경향, 2008년 8월 19일자, “[한국의 창종자들] 강대성



호남지방에서 발생한 3개 종교의 지역적 확산 과정과 특성: 증산교(甞山敎), 원불교(圓佛敎), 개정유도(更定儒道)를 중심으로

차자식 함께 수련에 들다”  
주간경향, 2008년 9월 2일자, “[한국의 창종자들] 개정유도  
서당, 교육의 장으로 개방”  
대진성주회, <http://www.djseongju.org>  
원불교, [www.won.or.kr](http://www.won.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Kakaomap, <https://map.kakao.com>

교신 : 조성욱,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chossww@jbnu.ac.kr](mailto:chossww@jbnu.ac.kr))

Correspondence : Sungwook Cho, 54896, 567, Baekje-  
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ail: [chossww@jbnu.ac.kr](mailto:chossww@jbnu.ac.kr))

투고접수일: 2022년 5월 19일

심사완료일: 2022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22년 6월 9일

